사랑하는 딸들에게...

인성여자고등학교장
김 광 준

얘들아! 올 여름엔 유난히도 무더웠지? 여름은 매년 오지만, 올해처럼 무더운 여름은 없었을 거야. 또 짧은 방학이었지만 즐겁게, 보람 있게 잘 지냈지?

아빠는 올 여름 방학 동안 작은 책 한권을 보았단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쓰신 '사랑하는 가족에게' 라는 책인데, 잠시 그 이야기를 해 줄게.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틀린 줄 알면서도 감싸주고, 실수해도 항상 실수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 주고, 어리석은 말만 골라서 해도 상대방의 말만이 진리인 것처럼 들어주는 거래.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굴까 하는 물음에 날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앉아 있는 사람이래. 누가 따지는 사람 옆에 가 있겠니? 용납하고 사랑해 주는 사람 옆에 가게 되어 있지? 그러니 따지지 말라시면서 가능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는 거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 그러는 것이니 받아주라는 거야.

이렇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사하나 빠진 사람처럼 사는 것 같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같이 못 산다는 거지. 뭐가 하나 없는 사람처럼, 바보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야. 사랑하면 사람이 변하고 따지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이야기는 부부나 가족을 예화로 들면서 한 이야기인데 우리도 학교에서 학우들과 빗대어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 일 년을, 이년을, 삼년을 함께하는 학우들인데 그 긴 시간 많은 정을 나누며 생활하잖아. 아빠는 이런 점을 보아 부부나 가족과 우리 학우들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단다.

얘들아!
사람이란 참 이상하지? 다 알면서도 죄를 짓고, 틀린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잖아. 그것이 우리 인간이지. 그런데 그 잘못을 지적한다고 고쳐질까? 안 고쳐지지? 그러니 틀린 것도 용서해 주고, 실수한 것도 용서해 주고, 무조건 사랑하라고 하셨어. 무슨 말을 해도 친구를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결정하면 내가 변하고, 나중에는 친구도 변한다는 것이야.

얘들아 우리도 한 번 그렇게 해보자. 예수님도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잖아.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잖아. 우리들 중에 죄를 지으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니? 인간의 본성인 죄성 때문에 본의 아닌 상황 속에서, 본의 아닌 이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저지르게 되지.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를 때리시지만, 용서하시잖아.

인간의 본질은 실수하는 데 있고, 하나님의 본질은 용서 하시는 데 있고, 인간은 결국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란다.

인간이란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자.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란다. 누구든지 실수 할 수 있고,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친구를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며 나 자신을 잘 지켜나가며 살기 바란다.

2017년 여름의 끝자락에서 사랑하는 딸들을 축복하며........

INSUNG GIRLS HIGHSCHOOL